

ESCO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터



이범용 회장

겨우내 얼어 있던 산천이 서서히 녹아 내리며 어느새 봄이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지만 우리 주변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걱정을 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등폭락은 우리 경제에 시름만을 안기고 있는 등 참으

로 암담한 현실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국가 산업을 위해 우리 ESCO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무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ESCO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저도 기쁨보다 중압감과 책임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ESCO는 지난 10여년 간의 노력으로 오늘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신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일선에 나서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나 민간 산업계에서도 ESCO산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며 사업 전반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중요한 고비를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의 활성화, 시장의 투명화, ESCO의 경영정상화, 전문인력 확보 및 재교육 등은 아직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ESCO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ESCO시장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ESCO사업 발굴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신규 사업을 발행해 회원사들에게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역그룹별 전담반을

편성해 회원사간 사업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 ESCO의 정책 자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방식의 자금을 투자해 시장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 대형 프로젝트를 각 업체들의 특·장점을 살려 공동으로 수주하거나 한 업체의 신용이 부족할 경우 2~3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문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대학들과 맺고 있는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깊이있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해 ESCO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사간 단결과 정보 공유입니다.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추진해 정보 축적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협회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해 회원들의 어려움과 전체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계의 흐름은 너무나 빠르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ESCO도 시장활성화 차원을 위해서도 국제적인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축적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분발과 단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